



Family

201912

사람을 향한 기술! 행복한 에너지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사람, 환경, 기술 그리고 사람 **Engineering for Human**  **한국전력기술**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중심(安全中心) 경영체계'로
차별화된 안전문화 정착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회사 안전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재해를 제로(Zero)'입니다.

-K-Message 중에서-

newpower, newstandard



2019년 12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 04 **K-Message** | 안전중심 경영체제로 차별화된 안전문화 정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06 **Focus** | 중국 SNERDI와 상호협력 및 기술교류 협의 외
- 10 **청백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 14 **일하며 즐기며** | 나의 AIX en Provence생활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 24 **新성장지도** | 금강하구의 겨울 풍광
- 30 **Storytelling** | 청어를 구매하러 동해로 몰리다
- 32 **기자칼럼** | 여행자를 위한 'TMI'
- 34 **생활과 과학** | 소중한 지구,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 36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 38 **KEPCO E&C NEWS** | 주한 체코대사와 체코 원전사업 협력방안 논의 외
- 40 **한기표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 42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 44 **인포메이션** |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 46 **Poem** | 12월 크리스마스
- 47 **에코포토** | 또 12월입니다



통권 455호 ·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19년 12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sky03tree@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안전중심 경영체제로 차별화된 안전문화 정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안전은 우리 임직원의 권리이자 최우선 가치

CEO's Message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건이나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연말연시 방심하기 쉬울 수 있는 시기에 안전(安全)에 유의하고, 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산업이 발전고도화됨에 따라 위험(危險)도 더욱 다양화·복잡화·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KTX 탈선 등 기반시설 사고 등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수준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도 우리 회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시설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심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 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해당 업무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으며, 안전은 습관(習慣) 즉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이며 보다 편안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중심(安全中心) 경영체제’로 차별화된 안전문화 정착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회사 안전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재해를 제로(Zero)’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조직시스템 강화, 체험형·맞춤형 등 다양한 재난안전보건 교육훈련, 재해예방 장비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 등 무재해·무사고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안전관련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은 ‘사전예방(事前豫防)’입니다.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안전구호 외침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안전 저해요인을 발견하여 제거하여야 합니다.

둘째,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必須)’입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 및 **협조하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의 ‘생활화(生活化)’입니다. 안전은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철저히 지키고 최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안전우선 풍토’와 ‘안전의 생활화’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당신의 권리’이며, ‘회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사장 이 배 수





중국 SNERDI와 상호협력 및 기술교류 협의

중국 상해핵공정설계연구원(SNERDI)과 상호 기술협력분야 확대를 위한 회의가 11월 11일 상해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배수 사장과 루 홍자오(LU Hongzao) SNERDI 회장은 양사 파트너십 수립과 사업 및 기술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배수 사장은 지난 40년간 축적된 우리 회사의 원전 건설 노하우와 이를 통해 이룩한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사가 건설 원전 및 소형원자로(SMR)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LU 회장 역시 우리 회사의 UAE 원전 건설 성과에 관심을 표하며, 양사 간의 기술협력과 원전 건설 경험 공유를 통해 제3국 원전 건설 시장확대 및 진출을 위해 협력 할 것을 희망하였다.

양사가 상호 기술협력을 위한 MOU 개정을 합의 함에 따라, 1997년에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중국의 AP1000 원전시장 참여 방안, SMR 기술협력 방안 및 A/E와 관련한 Lessons Learned 분야를 포함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회사는 향후 체결될 MOU가 중국시장 사업영역확대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연락사무소 개소식 개최

회사는 10월 29일 브루스파워(Bruce Power) 원전 인근 포트엘긴(Port Elgin)에서 캐나다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일순 상임감사와 김신환 원자로설계개발단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무역부국장을 비롯한 포트엘긴 시장, 브루스파워 원전 설비개선 담당 수석부사장 및 부사장 등 국내·외 귀빈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일순 상임감사는 인사말을 통해 사무소 개소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브루스파워 원전 설비개선 사업 성공을 위한 우리 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무역부장관 빅 페델리(Vic Fedeli)는 환영사 대독을 통해 우리 회사 사무소 개소에 대한 환영 인사와 함께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지난 7월 1일 설립한 캐나다 연락사무소는 캐나다 가동원전 설비개선 사업개발과 미국 및 중남미는 물론 유럽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써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주)무진기연과 ITER 세정탱크 설계·납품 사업 수주

회사는 10월 1일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한국사업단 및 국내 중소기업인 (주)무진기연과 공동으로 ITER 국제기구로부터 핵융합실험로 내 수소저감계통(Hydrogen Mitigation System)을 구성하는 세정탱크(Scrubber Tank)를 설계·납품하는 사업을 수주하였다.

그간 유럽 등의 특정한 국제 기술 요건에 대한 설계 및 제작 경험과 실적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수주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ITER 한국사업단의 긴밀한 협력과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통해 이번 사업 수주에 성공하게 되었다.

회사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을 다방면으로 진행해 왔으며, 특히 중소 원전 기자재 제작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사업수주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국내 원자력산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본 기자재 수출 모델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과 동반 해외시장 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건설 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회사는 11월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과 사업관리(PM/CM) 공동사업개발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변화은 에너지신사업본부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사업관리(PM/CM) 관련 선진기술 정보 교류 및 기술협력, 협력사업 관련한 정보 및 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유, 사업관리(PM/CM) 관련 사업발굴 및 사업개발/수행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회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략수립 역량과 우리 회사의 사업관리(PM/CM) 수행경험을 조합하여 사업수주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사업관리 최신기술 및 관련 사업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사업개발 및 기술 협력에 노력할 방침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회사는 11월 1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내부감사 품질 제고 및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일순 상임감사와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체감사기구 간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채널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감사인력 POOL 공동구성 △부패방지, 청렴문화 개선, 사회가치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우수성과 공유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정일순 상임감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송기정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자체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의 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에너지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2019년 제7차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협의회가 11월 13일 우리 회사에서 열렸다.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협의회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상임감사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와 회원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협력체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일순 상임감사를 비롯해 한국동서발전 등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우리 회사의 사업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기관별 감사업무 우수사례 발표, 최신 감사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일순 상임감사는 “본 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정부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으며, “2020년에도 실질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과 벤치마킹을 통해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감사 우수사례를 교류하고 감사전문성 향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 And

인간은 하나를 취하면 둘을 갖고 싶고
그것을 갖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소망한다.
이러한 욕구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지만,
죽으면서도 만족하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식을 물건처럼 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주고라도 갖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
자식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과 바꾸고 싶었고,
나이가 차도록 결혼을 안하고 버티고 있을 땐
딱만 데리고 오면 맛있는 반찬 365일
무한 제공해 주겠다고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않고 있을 땐
임신만 하면 당장 몇천만 원을 집어 줄듯이
간절히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

세월 흘러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자식도 가졌고, 병도 나았고, 결혼도 했고,
아이까지 낳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성취의 기쁨은 휘발성이 강해서
환희의 순간들은 벌써 기억에서 가물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치가 여름날의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아들이든 딸이든 둘은 되어야 한다는 욕심부터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했다.
말로는 저희들만 잘 살면 되지 뭐,
존재 자체가 효도라고 하면서도
감추어진 심사가 수시로 요동을 친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것만 저것만 하다가 또 한해가 저물었다.

나의 Aix en Provence생활



오늘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다. 언젠가부터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는 일이 창문 너머 하늘을 보는 일이 되었다.

어쩔 저리도 푸를까? 내리쬐는 햇살에 더 이상 잠을 청하기가 민망하여 침대를 박차고 일어선다. 일 년 내내 이곳의 날씨는 맑아서 간혹 흐리거나 비가 한차례 왔으면 하고 기대하게 된다.

기후가 건조하여 따가운 여름 햇살에도 그늘 밑은 시원하고 불쾌지수가 높지 않다. 한국은 태풍이 빈번하지만 이곳은 지중해의 지형적인 특징으로 태풍과 장마가 없으니 참으로 복 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시를 대표하는
미라보 광장의 분수대



내가 있는 이곳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Marseille)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엑상 프로방스’ (Aix en Provence) 라고 불리는 작은 소도시이다. 남 프로방스에 있는 여러 도시 중 하나로 이곳의 인구 분포는 특이하게 대다수가 노인분들과 젊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과 학생이 많은 이유는 온화한 기후와 큰 대학이 있기 때문이다. 은퇴하고 노후를 이곳에서 보내시는 노인분들은 사회활동의 참여도 활발한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음악과 댄스 등의 취미활동을 하며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 지인에게 들은 얘기지만 이분들은 자체 합창단을 조직하여 자비로 전문 지휘자를 섭외하여 일 년에 몇 번씩 연습한 곡을 발표하고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 전문 성악가를 초빙하기도 한다.

또한 이곳은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단과대가 있어서 이 대학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학이 한 장소를 차지하지 않고 엑스와 마르세유 도시 곳곳에 건물 단위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대학생 수는 8~9만 명 정도로 규모가 무척 크다. 참고로 프랑스의 대학은 일반적인 것을 가르치는 유니버시티와 그랑제콜이라는 전문적인 학교가 있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각자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유명 그랑제콜의 입학은 우리나라 명문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고 이 학교를 졸업한 소수의 인재들이 프랑스를 움직여 간다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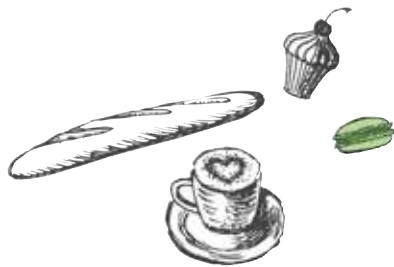
내가 이곳에 도착한 때는 겨울이 시작되는 때로 흐리고 조금 비가 내린 기억이 난다. 늦은 저녁 공항에 도착하니 해는 짧아져 어느덧 밖은 캄캄하고 거리는 가로등이 없어 어둡다. 다행히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주셔서 혼자라는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 있었으나 한국 같은 네온사인과 화려한 불빛이 없어 저녁나절부터 거리는 어둡고 지나가는 행인을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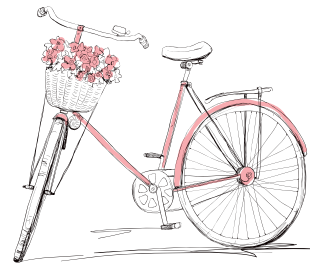
ITER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과의 점심식사

어느덧 이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그동안 지내온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회사 일에서 오는 피로감 보다는 이곳에서 정착을 위한 모든 활동들 은행 계좌, 전화 개통, 주택 구입, 체류 연장을 위한 행정 수속 등 어느 하나 수월한 게 없었다.

프랑스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더딘 행정처리, 소위 사데팡(Ca de-pend)이라는 담당자마다 달라지는 일처리 방법과 일관성의 결여 등 행정처리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새로이 정착하고자 오신 분들도 이러한 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수시로 달라지는 행정처리로 내가 했을 때의 방법과 또 달라져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음을 비우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되니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인 것 같다. 누군가는 힘겨웠던 일이 다른 누군가에는 수월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수월한 일이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기도 하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여 이곳의 느낌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 사람이 사는 곳 어디나 나름의 모습은 존재하고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볼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게 여겨지니 말이다.



이곳에서 사는 한국인으로는 주로 음악 관련하여 공부하러 왔다가 머무르는 분들과 유학생 그리고 ITER 사업을 위해 우리 회사와 같이 핵융합연구소에서 파견 온 직원들이 있다. 우리 직원은 현재 열두 명이 ITER의 직, 간접 고용 형태로 오셔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은 학교 문제로 국제 학교가 있는 마노스크에서 살고 단신 부임자들은 주로 Aix에서 지내고 있다. Aix에서 ITER 현장까지는 편도 40km 정도 걸리고 자가용이나 ITER 통근 버스 또는 일반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 특이한 점은 일터로 가는 버스는 공항이나 관광지로 가는 버스에 비하여 운임이 훨씬 저렴하여 노동자들과 관광객들에 차등을 두고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거리를 걷다 보면 아시아계 특히 중국인들도 많이 눈에 띄고 가끔 한국 관광객들도 마주치게 된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보는 것도 이 도시에서 느끼는 다채로움인 것 같다.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은 가끔 서로 초대하여 식사를 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한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프랑스 가족과 중국인 가정을 초대하여 영어, 프랑스, 중국어,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얼마 전에는 ITER에 근무하는 한 인도인 친구가 그 가족들이 여행 왔을 때 차가 없는 관계로 내 차량을 제공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참 좋했다는 생각이 든다.

주중에는 회사 업무로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니 특별한 건 없지만 주말에는 근교를 다녀오거나 집에서 쉬기도 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은 니스와 같은 바닷가 마을과 아비뇽, 아를 등의 도시가 있다. 집에서 쉬는 날이면 오래간만에 느긋하게 일어나 아

침을 먹는다. 아침은 주로 빵으로 이곳은 바게트가 보통 하나에 0.9~1.2 유로를 한다. 브랑제리(빵 가게)마다 차이는 있지만 밀가루가 신선해서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많이 먹어도 거북한 맛이 없다. 바게트에 약간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데 프랑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빵에 넣는 소금의 양을 제한하여 이 소금의 양이 빵의 맛을 좌우하여 맛을 내는 노하우가 여기서 달라진다고 한다. 우리 집 앞의 빵집은 바게트가 맛있기로 소문나 늘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갓 구운 빵 냄새는 참으로 좋다.



거리를 나설 때는 모아 둔 쓰레기 버리는 걸 잊지 않는다.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위해 따로 모아 두지만 음식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에 담아 같이 버린다. 프랑스의 음식문화가 한국처럼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지 않게 다 먹어 치우고 설거지 거리도 많이 나오지 않아 가정주부들이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 요리도 개선해야 할 점은 아닌지?

집을 나설 때는 태양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여름에는 필수로 밖에 나갈 때는 늘 사용한다. 길을 나서면 도로를 따라 뻗은 가로수 그늘이 시원하다. 건널목은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빨간 불이라도 차는 사람이 건널 때는 서야 한다. 한국과의 차이점이려면 차이점이랄까? 최근 공사를 마친 인도를 따라 길을 걷다 보면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 구간이 조금은 눈에 거슬린다. 내가 여기 올 때부터 하던 공사를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늦더라도 언젠가는 끝나고 철저히 하려는 거겠지 하고 좋게 생각해 본다. 한국처럼 똑딱하고 또 파내고 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는 화, 목, 토요일마다 시장이 서는데 오래된 골동품을 파는 벼룩시장 가판대가 눈에 띈다. 저런 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팔리니 매번 장이 서는 건 아닐지, 가판대를 지나가면 옷가지와 각종 물건을 파는 곳에 모여 사람들이 구경하고 흥정하느라 많이 몰려 있다.

이 거리에는 관광객이 많이 모여서 분수대를 배경으로 하여 사진 찍는 사람들,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가 간혹 들린다.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간혹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인들은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그들 특유의 소음은 여기서도 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거리는 이렇듯 사람들로 북적이고 한쪽에서는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오늘은 버스킹 하는 사람들 옆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전하는 단체들도 보인다. 주로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채식 주의자 몇몇이 서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응대하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라보 광장(Mirabeau)과 테라스 카페



플라타너스 나무

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이거나 하고 좋게 평가해 본다. 거리를 걷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프랑스는 화장실에 인색하고 부족하다. 특히 급한 볼일이 있을 때 화장실에 가려면 한국처럼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카페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프랑스 정부도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들을 위해 거리에 간이 공중 화장실을 세워두기도 하나 거리 으스스한 곳은 소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대낮에도 으스스한 곳에서 실례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거리 곳곳이 개 배설물과 새 배설물로 덮여 있는 경우가 많다. 눈에 거슬리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푸른 하늘, 시내 곳곳에 있는 분수, 거리를 따라서 있는 아름다리 플라타너스 나무 그들이 여름의 더위를 잊게 만든다. 이런 활기와 삶의 여유가 넘치는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낯선 곳의 두려움과 외로움에 앞서 행운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분수, 정원, 미술관, 박물관, 동상들이 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놀란 것이 양팔로 안을 수 없을 만큼 큰 플라타너스 나무였다. 그 큰 나무들이 거리의 가로수를 이루고 그렇게 크게 되기까지 견뎌온 도시의 역사를 생각하니 그 깊이가 부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이곳에서 활동한 미술가로는 폴 세잔이 있고 작가로는 에밀 졸라 등이 있다.



레 잘레 프로방살
Les allées provençales

골목길을 가다 보면 바닥에 주저앉아 구걸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처음에는 불쌍해 보여 동전을 주기도 하나 작은 액수에 불만족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음부터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않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매번 못 본체 하기가 겹연쩍다. 그런 사람들과 옆에 주저앉아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기 옷이 작아서 입으라고 주는 사람들,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예쁘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그들과 악수하고 옆에 앉아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인



이 도시의 명물인
생 빅투와르산



생 소뇌르
(Saint-Sauveur)대성당



1650년 마차를 위한 광장으로 만들어진 미라보 광장은 도시의 중심이 되었다. 주변으로는 화려한 17세기, 18세기 건축물과 분수가 늘어서 있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부유한 귀족 가문들의 우아한 주거지였으며, 광장에 위치한 음식점과 카페의 테라스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면 엑상 프로방스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카페에는 사람들이 모여 신문을 보거나 지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걸 보게 되는데 무슨 얘기가 저리도 많을까 싶도록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가보면 맥주 한 잔을 놓고 서너 시간을 서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Zola 댐의 정경

엑상 프로방스에는 화려한 다수의 분수들이 도시를 장식하고 있다. 도시의 원천으로 고대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수원은 엑상 프로방스의 역사의 시작이었다. 물이 매우 귀했던 지방이었지만, 엑상 프로방스에는 다수의 샘이 흐르고 있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베르동(Verdon) 운하와 졸라(Zola) 댐의 공사 덕분에 분수에 물이 풍족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근교의 호수 전경

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형성된 대성당으로 건축 양식에서 다양한 시대를 발견할 수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문, 고대 그리스 로마 양식의 벽, 고딕 양식의 조각상, 1323년부터 1425년 사이에 만들어진 종탑 등 세례당의 내부는 5세기 스타일로 꾸며져 있으며, 위엄 있고 우아한 양식을 지닌 12세기 스타일의 수도원은 주요 공간이다.

쇼핑, 휴식, 문화를 테마로 하는 복합 문화 구역으로 다수의 상점과 카페에는 늘 사람들로 붐빈다. 그랑 테아트르 드 프로방스(Grand Théâtre de Provence)와 CCN 파비옹 누아(Pavillon Noir)의 발레 프렐조카주(Ballet Preljocaj) 공연장과 같은 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거리를 나서면 햇살이 눈부시고 관광객들의 여유로움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전통과 예술 정신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산다는 게 참으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프랑스의 도로를 따라 운전하다 보면 잘 정리된 농경지 등은 우리도 농촌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부럽다. 비옥한 토지와 환경을 물려받은 탓이겠지만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려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배울 점도 많이 있다. 오늘도 봉주루(인사)와 메르시(감사), 빠흐동(실례합니다)하며 이 도시를 걷는 프랑스인의 여유로움과 활력에서 이 도시의 참된 저력과 매력을 느껴본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나의 일상에도... **E&C**

C ommunication

세월은 시간이라는 기차를 타고
쉽 없이 달려 한 해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아침 햇살,
해묵은 나뭇등굴에 걸터앉았고
노랗게 빛나던 국화도 그 빛을 거뒀었습니다.

세상은 바빠 가자 독촉을 하고
술한 날을 다름과 틀림을 혼돈한,
흑백 사고의 오류 속에서 참 많이도
부딪치고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사물을 마주함에 동서남북 각각 다른 지점에서,
춘하추동을 각각 다른 시간에서 사유할 것을 강조합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이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비로소 개인적으론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론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막상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만
멀고 가까움 상관없이 앞을 버린 나목도
나무가 되기 위해 긴긴 참선에 들었습니다.

추억보다 기억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추억은 행복의 편린이고
기억은 고통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뺀 말에 상처받은 이 없었는지,
‘더 친절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풀어놓은 물감처럼 번져갑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강하구의 겨울 풍광

북풍이 내려오는 12월, 하구의 겨울은 무채색이다. 봄에서 가을 사이
푸르고 붉었던 천변은 새하얗게 억새가 만발하고, 들과 마을은 길게 드리운 겨울 햇살에
일찍 몸을 누인다. 한 해를 맺는 끝 달이어서인지, 바람은 스산하고 풍광은 쓸쓸한데,
강가에 새로운 생명들이 날아든다.



늦가을, 우리나라의 호수와 강 곳곳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든다. 먼 북구로부터 날아온 겨울 철새들이 그 주인공이다. 수십만의 가창오리 떼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는 광경은 자연이 선사하는 손꼽히는 경이로움이며, 강과 땅이 살아 숨 쉬는 명증이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찾는 가창오리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수의 98%에 이른다고 한다. 가창오리뿐만 아니라 116여 종의 다양한 철새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한반도를 찾는다. 이처럼 많은 새들이 한반도를 월동지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베리아와 호주를 오가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 중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직 잘 보존된 환경과 해안, 갯벌, 호수, 늪지, 강이나 야산 같은 다양한 지형성도 한 몫할 것이다. 습지 생태전문가 닐 무어스는 그중에서도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와 갯벌의 생태계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의 갯벌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새 월동지는 주로 서남해안 부근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강하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서식지로 손꼽힌다. 진귀한 생명들로 분주한 금강하구를 찾아가 본다.

생명의 안락한 보금자리, 금강하구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수분리 신무산(해발 897m)에서 발원하여 전라북도 동북부와 충청북도 남서부를 거쳐 경기도 안성 땅까지 흘러갔다가 다시 천안, 공주, 부여, 논산, 서천 등 충청남도 곳곳을 적시며 군산 앞바다로 빠져나간다. 다른 강들이 남쪽이나 해안을 향해 흘러가



01 해가 질 무렵 나타나는 가창오리떼 02 군산의 금강철새조망대 03 철새는 물론 금강하구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04 조망대 안에 전시된 철새 박제 05 강과 바다가 만나는 군산의 포구 06 해망동에서 바라본 금강하구와 군산 풍경

는데 반해 내륙 중앙으로 향해 올라간다하여 반역의 강이라 불리기도 했다. 총길이는 407.5km, 금강 하구둑까지의 길이는 397.25km이며 전체 유역면적은 9,885km²이다. 금강에 하구둑이 만들어진 것은 1990년이다. 원래 이곳의 물길은 매우 불안정하여 홍수 시에는 단기간에 약 70%의 물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특히 만조와 홍수가 겹칠 때는 중·하류 평야 지역으로 물이 역류하여 범람이 잦았다. 이런 연유로 홍수피해 방지와 안정된 관개용수의 공급을 위해 1990년에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과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사이를 잇는 금강하구둑이 완공되었다. 이로 인해 금강하구는 1억3천만 톤의 담수량과 1,840km의 제방으로 이루어진 담수호가 되었다. 강 곳곳에는 너른 총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갈대밭과 사구, 해안 쪽의 풍성한 갯벌들이 펼쳐져 철새들이 서식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철새는 해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서식지를 바꾸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찾아 이동하는데, 환경파괴로 인해 해마다 그 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람사조약(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대 보호조약)이 제정되어 철새보호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새는 북방철새(기러기, 오리, 두루미 등)와 남방철새(제비, 백로, 왜가리 등) 그리고 잠시 머무는 나그네새(도요새, 물떼새 등)가 있으며, 겨울철새가 116종, 여름철새는 64종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새는 10월에 찾아와 이듬해 3월까지 체류하는데 그 중 금강하구를 찾는 철새는 고니류, 기러기류, 오리류가 주종을 이루며 40여종 50만 마리에 이른다.



돛배 대신 강을 메운 철새

내륙을 돌아 흘러온 금강은 강경 땅을 지나며 강폭이 넓어진다. 넓어진 하구 곳곳에 포구마을들이 형성되었는데, 강경포, 성당포, 웅포, 나포 등이다. 하구둑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젓갈을 실은 돛배가 강경까지 올라왔고, 강경은 전국에서 제일 큰 젓갈 시장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지금도 겨울 김장철을 전후해서 하루 매출액이 몇억씩 오른다고 한다. 포구들을 거쳐 흘러온 강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은 군산 땅이다. 강경과 마찬가지로 군산의 삶도 풍요로웠다. 고려 시대에는 공출된 조세미를 개경으로 거두기 위한 조창이 설치되었고 1899년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항구가 개항되었다. 비록 일제의 쌀 수탈을 위한 강압적인 개항이었지만 이때부터 작은 포구마을이었던 군산은 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다. 주변의 임옥평야는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이곳만 괜찮으면 큰 걱정이 없다.’ 할 정도로 너르고 기름진 땅이다. 임옥평야를 비롯한 곡창지대 호남의 수많은 쌀이 이곳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대신 일본의 공업제품들이 이곳을 통해 수입되었다. 어느 곳보다 신식 문물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무역의 도시로 군산은 번성했다. 그러나 침탈의 역사 속에서 번성은 침탈 당하던 자들의 젓은 아니었나보다. 군산 출신의 소설가 채만식은 그의 소설 『탁류』에서 금강하구를 빗대어 ‘눈물의 강’이라 표현하



였다. 번성을 쫓아 군산으로 들어온 서천 출신 일가의 몰락을 통해 당시 민초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군산의 적산가옥들은 번성했을 당시의 모습을 빗바랜 사진의 풍광처럼 희미하게 간직하고 있다.

흘러간 시간들이 남겨 놓은 묘연한 풍광, 월명공원과 해망동

신흥동과 해망동에 걸쳐 있는 월명공원은 군산의 풍광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군산의 상징이다. 나직한 월명산을 비롯해 장계산, 설림산, 점방산, 석치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산책로가 정갈하게 꾸며져 있는데 공원의 면적이 무려 78만여 평에 이른다. 공원의 역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개항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이곳에 벚나무를 심었다. 월명공원에 벚꽃이 필 무렵이면 김제 쪽에 살던 일본 사람들까지 게다가 신고 와서 정종을 마시고 춤추며 놀았다고 한다. 이제 항구도시의 번성도 가고 벚꽃 흐드러진 봄날의 흥취도 없지만 월명공원은 군산여정의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한편 월명공원과 바닷가 선창 사이 비탈에 들어선 해망동은 근대화 시기 군산에 대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공간이다. 해방 후 피난민들이 들어서며 하나 둘 집을 짓기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텃 이어져 만들어진 해망동 마을은 적층식 가옥구조와 미로 같은 골목길을 따라 지붕들의 선이 하늘과 맞닿아 이어진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동네라 하여 이름 붙여진 해망동은 산업 근대화시절 활황이던 수산업과 청구목재 등 합판산업의 배후주거지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활기를 띠었던 삶의 현장이기도 했다. 지금은 낡고 쇠락한 공간으로 남겨져 있지만 골목을 따라 산을 오르거나 선창 쪽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은 시간의 걸을 따라 걷는 사유의 산책길이다. 바람이 거세거나 하구에 자리한 군장산업단지 위로 노을이 저물 무렵, 해망동 비탈 골목에서 바라보는 풍광이야말로 가장 군산스러운 풍광이 아닐까 싶다. 사람의 세월이 흘러간 강에서 슬프거나 아픈 것들이 곱팡이처럼 피어 금강하구둑의 초겨울 오후 풍광은 더욱 스산해 보였다. 스산한 풍광 위로 새들이 날아간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사람의 세월도 여전히 흐르는데 새들은 묵묵히 흘러가는 강가에서 또 겨울을 난다.

07 해망동과 선창을 이어주는 해망굴 08 금강하구둑의 산책로 09 옛 동네의 향수가 느껴지는 해망동 10 바다로 흘러드는 강과 산업단지의 공장들 11 선창 주변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12 강 건너 서천의 드넓은 신성리갈대밭

청어를 구매했던 동해로 물리다

◆ 조선시대 해산물의 유통

조선시대 해산물은 내륙에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대표적인 어물에는 명태가 있었다. 그런데 명태를 살아 있는 그대로 육지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가공된 명태가 나타났다. 황태가 대표적이다. 겨울철 내내 칼바람을 맞으며 잘 말린 명태를 육지로 보내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했다. 젓갈 또한 마찬가지였다.

명태가 동해안 북부 지방의 대표적인 어물이었다면, 청어는 동해안 남부 지방의 어물이었다. 청어는 말리기도 하고 생물로도 옮기기도 했는데, 생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음이 필요했다. 조선시대 빙고가 각 지방에 설치되고 얼음이 판매 유통되었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였다.

어물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으므로 교통로가 확보되어야 했다. 명태가 서울로 운반되는 데는 철령이 중요한 교통로 구실을 했다면, 경상도 내륙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영천이 중요한 길목 중 하나였다. 동해안 남부의 포항, 경주, 울산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영천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기분류	사행일기
출 전	청대일기(淸臺日記)
시 기	1736년 12월 27일 ~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인 물	권상일
장 소	경상북도 영천시

1736년 12월 27일, 계절 음식은 제때에 산지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조선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였으므로 동해, 서해, 남해에서 각기 제철에 나오는 음식이 달랐다. 음식이 다르다는 말은 곳 산물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서해에는 꽃게, 동해에는 대게가 잡히듯이 각기 지역에는 자기 지역만의 특산물이 있었다.

울산 부사 권상일(權相一)은 서울에서의 추고(推考)를 마치고 고향에 들러 잠시 쉬었다가 다시 울산의 임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중에 영천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영천이 어떠한 곳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대구에서 포항과 경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천을 지나야 했다. 영천이 그만큼 교통의 요지인 것은 조선시대도 다를 바가 없었다.

권상일의 눈에 청어가 들어왔다. 동해에서 겨울철에 잡히는 청어는 동해 어민들의 주 수입원이었다. 포항과 경주, 울산에서 잡힌 청어가 내륙의 백성들의 밥상에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천을 지나야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 청어를 사러 온 자들이 말에는 싣고 사람들은 지고 앞뒤로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이 볼 만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바닷가의 물산이 얼마나 풍부한지 지레 짐작할 수 있다. E&C

여행자를 위한 TMI [Too Much Information]

여행자를 위한 변명

‘오버투어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있다. 신조어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과잉관광’쯤 되겠다. 더 풀어보면 여행자들로 넘쳐나서 여행지가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도 피해를 입는다 정도 되겠다. 사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여행자 유입을 줄이려는 노력이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인 유명지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그렇다. 일종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여행자를 막아 보려고 한다. 여기서 소심한 반론을 내놓는다. 넘쳐나는 여행자들로 인해 피곤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여행자들이 없었다면 그 도시는 지금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아마도 그 도시들은 지금의 활력과 부유함을 절대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사람은 도시를 바꾼다

내 주장의 근거는 이거다. 최근 경주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갔는데 말로만 듣던 황리단길에 입이 썩 벌어졌다. 올 초 다녀온 베트남 호안만을 연상케 했다. 사람들로 또 외국인들로 넘쳤다. 고요한 천년 고도가 요즘 말로 ‘힙한’ 도시가 됐다. 그 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봤다. 곳곳에 아름다운 카페와 음식점이 자리를 잡았다. 물론 그 곳에도 한 두 곳쯤에 “주민이 사는 곳이니 소음을 줄여 달라”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로 넘쳐나는 경주는 십여 년 전 고즈넉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었던 경주를 완전히 다른 도시로 만들어 놨다. 사람의 힘이다.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의 힘. 그렇게 사람이 다녀야 도시가 살아나고 주민들 입가에 웃음이 돌게 되는 법이다.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말은 여행자들에게는 듣기 거북한 표현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나쁜 여행자는 없다

앞서 말한 오버투어리즘은 여행객들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자. 해외 든 국내 타지든 여행객들은 설레하면서 대체로 긴장을 한다. 그 지역을 모르고 돌아다니는 방법도 잘 모르니 당연한 일이다. 웃는 인상의 현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도 잦다. 여행자들이 막 되먹은 행동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당연한 일이다. 여행자는 대체로 소심하다. 바가지를 씌우는 등 못된 짓은 보통 현지인의 몫이다. 여행자는 이른바 ‘호구’가 되는 일이 잦다. 나쁜 여행자는 별로 없다.

‘여행’자를 응원한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 유명한 박막례 할머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돈도 많이 번다. 그런 그녀를 바꾼 계기는 호주 케언즈로 떠난 여행이다. 그 여행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살게 했다. 무엇이 평범한 할머니에게 열광케 했을까? 영상속의 그녀가 낯선 곳에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박막례 할머니가 여행에서 울고 웃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고 심장이 뛸 수밖에 없는 게 여행이다. 좌충우돌하는 박막례 할머니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대리만족’을 느꼈을 게다.

‘먹방’이 먹는 것 사실 ‘여행’ 때문이다

TV를 틀면 정말 준비하게 나오는 아이템이 바로 ‘먹방’이다.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특히 인기 있는 채널을 유심히 보면 먹는 곳과 더불어 새로운 곳이 등장한다. 먹는 것과 보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 그게 여행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부산 해운대의 꿈장어가, 또 별교의 꼬막이 그렇게 맛있는 건 바로 ‘그곳’이 주는 매력 때문이다. 여행만이 그 두 가지를 만족시켜 준다.



집에서 쉬는 게 최고라는 말은 대체로 틀린 말이다

필자의 아내는 별명이 ‘집돌이’였다. 결혼 전 연애를 할 때도 도통 가는 곳마다 처음인 곳이 많았다. 도대체 주말에 뭐했냐? 고 물으면 으레 “쉬고 자고 먹었지” 이런 답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여행을 가선 우린 어떻게 지내는가? 역시 쉬고 자고 먹는다. 지금의 필자의 아내는 자유 여행의 이른바 ‘매니아’가 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똑같이 쉬고 먹고 자는데, 새로운 곳에서 하니 참 재미있었다는 거다. 문 밖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문 밖에 제대로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여행자가 돼야한다

떠나는 준비를 해야 할 때다

돈금없어 보이지만 여행과 꽤 밀접한 이야기를 해보자. 2050년이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인구가(745만명) 20세 이상 인구(617만명)보다 많아진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재앙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 살기가 어려워진다. 간단히 말해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진다. 적절한 해결책 중 하나가 외국으로 나가 사는 거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이를테면 동남아 같은 곳 말이다. 지금 고령사회로 접어든 유럽과 일본의 꽤 많은 고령자들이 이렇게 산다. 조금 과장한다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노년에 짐을 싸야할 때가 멀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노후에 가야할지도 모를 그곳 동남아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거다. 이민을 대거 확대할 날이 임박했다. 최근 10년간 100조원을 넘게 쏟아 부은 출산 대책은 모두, 완전히 실패했다.

‘한 달 살기’가 유행이 된 건 다 이유가 있다

외국의 특정 지역에서 ‘한 달 살기’가 유행이 된지 오래다. 말 그대로 한 번 살아보는 거다. 필자도 올 초 베트남 호이안에서만 꼬박 8일을 머물렀다. 그저 자고 먹고 쉬고, 일상의 주말을 그곳에서 반복했다. 여행을 가면 한 때는 강박적으로 무조건 움직였던 게 나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는 게 남는 거라 믿었다. 지금은 달라졌다. 뭘 더 보고 싶다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면 어떨까? 이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으로 여행을 다닌다. 앞서 말한 시대의 변화가 내 생각조차 알게 모르게 바꾸고 있는 듯하다.



비가 올 때 떠나라

이게 뭘 소리냐 할 거다. 여행으로 먹고사는 지인이 오래 전 내게 한 말이다. 그런데 대체로 국내 여행에서라면 맞는 말이다. 장마가 아니고서야 비가 올 때 이동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 이동하는 사람들도 적고 또 여행지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대체로 날씨는 맑아져 있다. 올 여름 휴가는 지금도 억울하다. 제주에서 8일을 즐겁게 보냈는데도 말이다. 애초 태국 방콕에서 보름쯤 머물려고 했다. 경유는 해봤지만 그 곳을 즐겨 본 적이 없어서다. 그런데 이 더위에 그 더운 나라를 가야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다. 참 멍청한 짓이다. 제주가 별로였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을 즐길 기회를 오지도 않을 비를 걱정하듯 포기해 버려서다. 올 여름 제주와 방콕은 그저 똑같이 더웠다. 여행에서 분출됐을 아드레날린을 도둑맞은 기분이다. 언제든 착한 여행자가 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자.

**별첨 : 여행자 팁

주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여행에서 필요한 상식하나 전한다. 이들 나라에선 거리 음식을 먹을 때는 얼음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게 좋다. 소득이 1만불이 안되는 나라라면 음료 속 ‘얼음’은 대체로 용기에 포장된 ‘생수=물’로 만들지 않는다. 좀 더 정확히는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어렵다.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설사 조금 음식이 탔더라도 가열된 음식은 탈이 나지 않는다. 늘 깜빡하는 상식. 잊지 말자. 그리고 더 중요한 팁. 같은 컨디션(소득 1만불 이하)이라면 놀이동산을 가는 건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그렇다. 올 초 겪었다. 요즘 베트남에서 말이다. 놀이기구가 멈춰 가족이 허공에 10분이나 매달려 있었다. 항의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가관이다. “여기선 매일 사고가 납니다.” 실제 매일 사고가 난다. 사실이다. 어린 아이를 동반했다면 어지간해선 놀이동산은 피하는 게 좋다. **E&C**

소중한 지구,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린 역사는 꽤 오래됐다. 아마도 그건 먼 옛날,
배를 타고 육지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이 생겨난 바로 그 순간부터일 것이다.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인간(혹은 가축)의 배설물은 모두 바다에 버려졌을 테니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육지에서 가까운 섬을 오가는 단거리 여객선의 경우 선박 뒤편 꼬트머리에 위치한 화장실로 들어가면 변기 아래로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대양(大洋)은 그 이름답게 넓은 아량으로 사람들이 버린 것들도 모두 보듬어 다시 생태계 안으로 순환시켰다. 근대화 이전 시대의 쓰레기들이란 대부분 자연물의 일부이거나 유기물이었기에, 너른 대양 속을 가득 메운 작은 생명체들은 이를 먹고 소화시켜 다시 지구 생태계의 자원으로 되돌려주는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세계화에 따른 잦은 장거리 이동으로 선박 운행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늘어난데다가, 늘어난 인구가 살 자리가 비좁아지자 육지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마저도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인류는 이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화학물질들을 만들어 냈고, 이들은 곧 엄청난 쓰레기더미가 돼 바다로 버려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화학물질 중에서 메가 히트 상품은 '플라스틱'이었다. 가볍고 가격도 싼데다가 방수성과 절연성을 갖추었으면서도 색과 모양을 가공하기 편리한 플라스틱은 삼시간에 인간의 삶 전반에 끼어들었다. 현재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1인당 연간 42kg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 연한이 있기 마련이고, 제 역할을 다 한 뒤에는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제품으로써의

수명은 짧은데 비해(심지어 제품 포장의 경우,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쓰레기가 된다) 플라스틱이라는 성분 자체의 분해 주기는 반영구적일만큼 길다는 것이 문제다. 지구 역사에서 신출내기로 등장한 플라스틱은 지구의 분해자인 미생물들에게는 너무나 낯설어 이들을 분해시키는 능력을 지닌 분해자가 없는 탓이다. 자꾸만 쌓여가는 쓰레기 문제에서 골치 아픈 이들은 아주 손쉬운 해결책을 찾아낸다. 바로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인 바다에 버리는 것!

보고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해도 연간 19만㎡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10톤 트럭 1만여 대에 달하는 쓰레기가 해마다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양에서 발견된 쓰레기의 80%는 육지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렇게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 중 유기물은 해양미생물들에 의해 분해돼 문제를 덜 일으키지만(어디까지나 '덜'한 것이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유기물이 대량 방류되면 적조 현상과 같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나머지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

특히나 플라스틱의 경우,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는 특성상 대부분이 그대로 남게 돼 해양 쓰레기의 90%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물결을 타고 떠돌다가 해류의 흐름에 떠밀려 특정 지역에 모여들고는 마치 그들만의 아틀란티스처럼 점점 세를 불린다.

1997년 하와이에서 열린 요트 경기에 참여해 LA로 향해가던 미국인 찰스 무어는 망망대해 북태평양의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와 마주하게 된다. 일명 '플라스틱 아일랜드(plastic island)'의 발견



이었다. 이후 이런 '섬'들은 추가로 발견돼, 현재 북태평양 지역의 거대한 쓰레기 밀집 지역은 적어도 세 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이루는 조성물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90% 이상이 플라스틱 제품이다. 일설에는 인공위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두텁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에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둥둥 떠 있는 형상이다. 사실 이들이 그냥 그대로 떠 있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플라스틱 아일랜드는 거대하기



사진. 대양 위에 떠 있는 쓰레기 섬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경각심을 주었다.
(출처: shutterstock)

는 하지만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북태평양 한 가운데에 있으니, 근처를 지나가는 선박들만 주의한다면 관촬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들이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교란이다. 종종 언론을 통해 그물을 먹고 죽은 고래나 플라스틱 조각을 삼켜서 괴로워하는 바다 새의 모습이 등장하곤 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큰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이다.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바다에서 떠돌며 햇빛에 노출되면 물리적 충격에 의해 잘게 부스러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잘게 부스러진 마이크로플라스틱은 많은 해양 생물들에게 먹잇감으로 오인되곤 한다.

물속의 플랑크톤이나 작은 갑각류를 걸러 먹는 것은 많은 물고기들의 영양 섭취 방법이다. 이렇게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 이들은 소화되지 않고 몸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이들은 다시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단계의 포식자들에게 먹힘으로써 결국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간다. 즉, 내부로부터의 '플라스틱 중독'이 일어나는 셈으로 결국 이는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면 그 영향은 결국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인간 역시도 그 파멸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이 시간도 북태평양 바다 위에는 또 하나의 플라스틱 더미가 더해지고 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킬지도 모른다. **ES&C**



Festival

강화도 송어·빙어축제

기 간 : 2019년 12월 21일 ~ 2020년 2월 23일 장 소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저수지



은백의 겨울, 왕방마을 인산낙시터에서 제8회 강화도 송어, 빙어축제를 개최한다.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산책로, 얼음썰매 등 여러 즐길거리와 이벤트는 물론 낚시 체험과 더불어 송어회, 송어구이, 송어튀김, 빙어튀김 등 겨울철 별미 먹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또한 토, 일요일에는 수영장 송어잡기, 어린이빙어뜨기 등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수 있는 축제로 드넓은 대양을 품은 아름다운 강화도의 별, 대자연의 신비, 그 감동과 만날수 있다.

www.insanry.com

Exhibition

앨런 플레처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기 간 : ~ 2020년 2월 16일 장 소 :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

“영국 디자인의 신화, 앨런 플레처 국내 최초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현대전 의미의 그래픽 디자인을 영국에 처음 선보인 영국 디자인의 신화, 앨런 플레처(Alan Fletcher, 1931~2006)는 잡지, 책, 포스터와 같은 인쇄물로부터 주요 기관들의 상징물까지 다종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남겼고 오늘날 디자인 스튜디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 컨설팅 회사인 '펜타그램(Pentagram)'의 창립 멤버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앨런 플레처의 50년 디자인 인생을 총 망라하여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회고전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남다른 시각으로 작업한 앨런 플레처의 작품을 통해 20세기 영국 디자인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의 디자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ww.sangsangmad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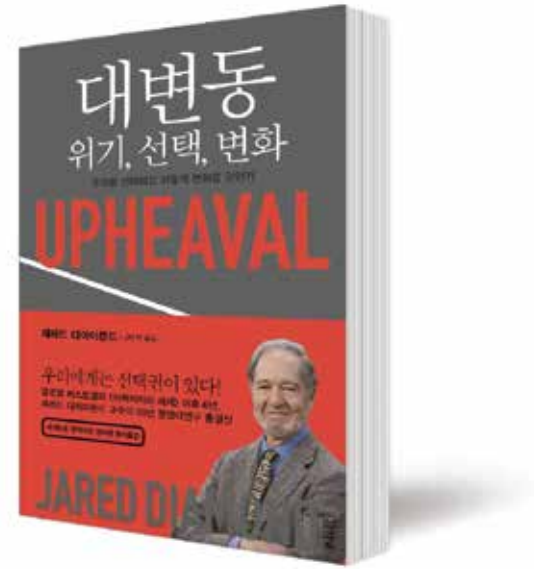
Book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세계를 움직이는 석학 중의 석학, 문화인류학에서 역사, 과학, 미래 전망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대한 지성,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문명연구 총결산 '미래의 기회' 편! 문명의 흥망성쇠를 탐사한 『총, 군, 쇠』,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에 이어 위기, 선택, 변화로 달라지는 미래를 완벽하게 통찰한 역작. 위기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12가지 요인, 대변동을 극복하고 성공한 국가 연구, 일본과 미국의 당면한 문제와 변화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 전망까지, 나와 세계의 미래를 구하는 강력한 해법!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번 신작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마침내 완성하였다. 그의 60년 문명연구 총결산이 된 대망의 4부작은 이제 미래 역사로 나아간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성공과 자멸을 결정짓는 터닝 포인트는 무엇일까. 다이아몬드 교수의 특기인 눈부신 비교 연구, 역사학 지리학 언어학 인류학 생물학 그리고 심리학까지 총망라한 압도적인 지식, 문명의 어제와 오늘을 가로지르는 번뜩이는 통찰은 지금까지의 모든 저작을 넘어서며 미래를 위한 지혜와 해법을 선사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저/강주현 역 | 김영사



Movie

고흐, 영원의 문에서

“내가 보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살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운명의 친구 폴 고갱을 만난다

그 마저도 자신을 떠나자 깊은 슬픔에 빠지지만 신이 준 선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몰두한다.

불멸의 걸작이 탄생한 프랑스 아를에서부터 오베르 쉬르 우아즈까지....

빈센트 반 고흐의 눈부신 마지막 나날을 담은 기록

개봉예정



KEPCO E&C News



● 주한 체코대사와 체코 원전사업 협력방안 논의

회사는 10월 17일, 주한 체코대사관에서 체코 원전사업 상호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배수 사장과 구스타브 슬라메츠키가 주한 체코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배수 사장은 우리 회사의 설계경험과 기술력을 소개하며 신규 원전사업 및 중소형원자로(SMR : Small Modular Reactor) 사업 등 향후 원전사업 협력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전달하였다. 체코는 석탄발전 감축 및 에너지 다변화를 위해 두코바니, 테멜린 등 2건의 신규 원전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회사는 한수원이 주도하는 코리아팀의 일원으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이며, 체코대사관은 물론 현지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원자력 안전문화 증진/정착을 위한 특강 및 간담회 개최

회사는 원자력안전문화 증진/정착을 위하여 11월 1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전취수 기술총괄부 사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회사와 한수원 간의 '원자력 안전문화 증진 시스템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주요부서장과 한수원 전취수 기술총괄부사장 및 엔지니어링처장 등 양사의 관련 임직원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왜 원자력 안전문화인가? △주요 사고사례 △한수원 안전문화 증진 시스템(운영프로세스) △원자력 안전문화 특질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강에서 전취수 부사장은 원자력 안전문화 특질 10가지를 소개하며, "원자력에 종사하는 경영진 및 상위관리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리더는 안전에 대한 약속을 의사결정 및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진태은 원자력본부장과 한수원 부사장은 상호 니즈를 파악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회사 간 '원자력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성' 및 '원자력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문화 인식제고' 등 안전문화 강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원자로설계개발단 ASME N 인증갱신 심사 수검

회사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원자력 기술기준의 권위기관인 미국 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ASME)로부터 ASME 인증갱신심사를 받았다. 이번 갱신 심사는 2013년 ASME 인증서 최초 취득 이후 ASME Code 적용 품질보증 능력을 점검받기 위해 이뤄졌다. 회사는 이번 수검에서 "ASME 품질보증 체계와 절차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회사는 2013년 ASME 인증서 최초 취득 이후 ASME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유지해 왔다. 특히, 품질보증계획의 운영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자로설계개발단 ASME 인증갱신 추진반을 구성하고, 인증범위인 "ASME Sec. III, Class 1,2&3 Vessel 제조(단, 제작은 적정 인증업체에 하도급 수행)"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다. 회사는 이번 심사의 성공적인 수검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해외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ASME Code 적용 품질보증 능력의 국제적 공인 및 회사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에너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회사는 11월 22일 한국환경공단과 미래지향적 환경·에너지분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최근 친환경과 신재생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분야 트렌드에 발맞추어, 양사의 전문성에 기인한 협력체계 운영과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바이오매스 발전, Waste to Energy 발전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주요 협력분야로 설정하고 국내·외 협력사업의 성공적 공동개발과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정보 교류와 추진전략 수립, 환경기술 발전 방안 등에 협력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 2019년 협력사 Quality Day 개최

회사는 협력업체를 초청해 '2019년 협력사 Quality Day - With Best Quality & Safety First'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안전보건교육과 병행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설계품질·안전 인식 제고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은 "전력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품질과 안전문화의 내실화 및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동반성장을 이루어내자"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협력사의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품질과 안전문화의 증진 및 내실화를 위해 Quality Day 개최, 협력업체 방문형 품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나눔 봉사 실시

회사는 11월 20일 참사랑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평화시장상인회 봉사단과 공동으로 지역 소외 계층이 따뜻하고 든든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이배수 사장과 임직원 50여명, 평화시장상인회 봉사단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김천 평화시장에서 한 마음으로 소매를 걷고 김장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김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평화시장에서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날 직접 담근 김장김치 500포기는 김천지역의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배수 사장은 "오늘 나눈 우리의 정성으로 김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운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임직원들과 평화시장상인회 봉사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평화시장상인회 김한규 회장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한전기술 이배수 사장님을 비롯해 봉사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회사는 '전통시장에서 가치 삼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김천 지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다.



알 수 없는 상자

| 금품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또는 직원의 경조사와 관련한 5만원을 초과해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은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2항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①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 ②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 단체 등에 기증
 - ③ 제1호 및 2호 이외의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④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기준
- 행동강령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품제공자 알 수 없는 경우



윤리행동강령책임자는 신고 금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윤리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제공자가 확인 된 경우 : 제공자에게 반환
2. 멸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부별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인도
3.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인도된 금품 등 처리
 -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단체 등 기증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제35회 대덕연구단지 테니스 대회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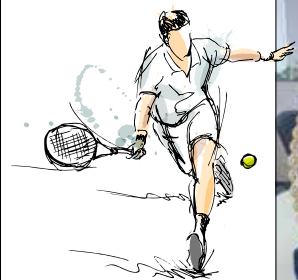
추계대회 단체사진



추계대회 각조의 우승자들

한기테니스회는 10월 9일 추계대회를 개최하였다. 열화와 같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총 55명이 참가하였다. 추계대회는 왕중왕부(7명), 오픈부(8명), 신인부(6명), 개나리부(20명), 병아리부(14명)으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인원이 많은 개나리부와 병아리부는 각각 2개조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였다.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결과, 왕중왕부 품질안전환경처 김진국처장, 오픈부 토건환경기술실 전진호부장, 신인부 토건환경기술실 이태용부장, 개나리부 1조 전기계측기술실 김장현 사원, 개나리부 2조 토목건축기술실 류민광부장, 병아리부 1조 PSA&PSR사업그룹 정의제 사원, 병아리부 2조 기계배관기술실 윤재성 차장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10월 27일 김천시체육회가 주체한 제30회 김천시장기 테니스대회 직장부에 참가하여 3위에 입상하였다. 김천시에 소재한 회사 12개 팀이 3복식 단체전으로 예선전은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렀다. 이번 대회에는 고리현장의 김유석 부장, 한울현장의 이완호 처장이 합류하여 출전한 2개조 모두 본선에 진출하며 우승까지도 예상하였으나, 준결승전에서 복병을 만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아쉽게 3위를 차지하였다. 한기테니스회는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회원 모두 단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건강과 화합을 다지며 활동 중이다.



김천시장기 테니스대회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력)PSA&PSR사업그룹 김원직 대리 : 10월 26일 성광고회
- ▶ 신사업)전기계측기술실 이진성 부장 자녀 : 10월 26일 지구촌교회
-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조원균 대리 : 10월 26일 구미 라비에벨컨벤션웨딩
- ▶ 품질보증팀 이준학 과장 : 10월 27일 대구 컨벨호텔
- ▶ 계약관리실 이원주 부장 자녀 : 11월 2일 드레스가든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강유림 대리 : 11월 2일 대전 KW컨벤션센터
- ▶ 신사업)기계배관환경기술실 최정민 대리 : 11월 2일 수원 이비스 엠배서더
-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박종만 부장 자녀 : 11월 3일 스카이뷰 섬유센터
-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박창민 과장 : 11월 3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정대웅 대리 : 11월 9일 전주 왕의지일 컨벤션
-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최윤범 대리 : 11월 9일 엘루체컨벤션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유완 부장 자녀 : 11월 9일 대전 법동성당
- ▶ 원자로)신기술사업그룹 김일환 대리 : 11월 9일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
- ▶ 원자력)토건환경기술실 박영훈 대리 : 11월 16일 구미 베나아모리스 컨벤션
- ▶ 신사업)기계배관환경기술실 문성빈 대리 : 11월 23일 대구 M스타하우스
- ▶ 신사업)신사업개발처 임태식 부장 자녀 : 11월 30일 수원 스칼라티움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박병종 대리 : 11월 30일 부산 더리안 웨딩홀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최민석 과장 : 11월 30일 어린이회관 려움웨딩(W컨벤션)

부음

- ▶ 원자력)원자력사업관리실 박순기 과장 모친상 : 10월 3일 이대서울병원
-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이정하 부장 모친상 : 10월 8일 한일병원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백승민 처장 장모상 : 10월 20일 대전 성모병원
- ▶ 원자력)전기계측기술실 이진호 부장 모친상 : 10월 21일 이천성당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박순희 부장 부친상 : 10월 25일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실 하무형 부장 장인상 : 10월 26일 원자력병원
- ▶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이화중 부장 장모상 : 11월 4일 동탄성심병원
- ▶ 원자력)원자력사업관리실 심현숙 부장 부친상 : 11월 12일 분당 서울대병원
- ▶ 원자력)원자력사업관리실 조진구 부장 장모상 : 11월 14일 아주대학교병원
- ▶ 경영지원처 조민영 과장 모친상 : 11월 1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이상섭 부장 부친상 : 11월 20일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동우회 동정

홈커밍데이 행사



회사는 한기동우회 창립3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을 김천으로 초청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10월 24일에 가졌다. 이번 김천행사 일정은 김천본사 방문, 회사현황 브리핑, 홍보관 관람, 후배사원과의 만남, 점심식사, 직지사 투어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천 본사에서는 이배수 사장을 비롯한 경영간부들과 부서장,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이 있었다.

결혼

- 장영우 회원 자녀 : 10월 12일 석파랑
- 김수원 회원 자녀 : 10월 19일 라비에벨웨딩
- 최대식 회원 자녀 : 11월 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박종만 회원 자녀 : 11월 3일 스카이뷰 섬유센터
- 이광영 감사 자녀 : 11월 5일 라비두스
- 오동범 회원 자녀 : 11월 16일 서울 DMCE타워웨딩홀

부음

- 이정일 회원 장인상 : 10월 1일 부산 정요양병원
- 송대용 자문위원 장모상 : 10월 9일 해운대병원
- 배은희 회원 장모상 : 10월 13일 아산중양병원
- 조병복 회원 장인상 : 10월 14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허경일 회원 모친상 : 10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 송인회 고문 장모상 : 10월 30일 서울아산병원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 2018년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2.1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

*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 : (2016년) 1,141건 → (2017년) 1,144건 → (2018년) 1,111건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에서의 소비자피해가 57.7%로 가장 많아

2018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시점 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 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 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 피해발생시점별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건,%)

피해유형		2015년		2018년		증감율*(C)
		건수(A)	비율	건수(A)	비율	
가입단계	주요내용 설명 고지 미흡	126	11.0	128	11.5	1.6
	부당 가입	95	8.3	50	4.5	-47.4
	가입 지연·누락	33	3.0	14	1.3	-57.6
	소 계	254	22.3	192	17.3	-24.4
이용단계	계약 불이행	428	37.5	470	42.3	9.8
	통화 품질 불량	111	9.7	55	5.0	-50.5
	이용요금 과다 청구	97	8.5	70	6.3	-27.8
	이용조건 변경, 이용 제한	41	3.6	46	4.1	12.2
	소 계	677	59.3	641	57.7	-5.3
해지단계	청약철회 거부	93	8.1	171	15.4	83.9
	위약금 부당 청구	52	4.6	50	4.5	-3.8
	해지 지연·누락	42	3.7	40	3.6	-4.8
	소 계	187	16.4	261	23.5	39.6
기 타		23	2.0	17	1.5	-26.1
계		1,141	100.0	1,111	100.0	-2.6

* 증감율 : C=(B-A)/Ax100



LGU+,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 32.1건으로 가장 많아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296건, SKT 237건 순이었다. 2015년 신청 현황과 비교하면,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 (단위:건,%)

구 분	2015년		2018년		증감율**	
	총 건수(A)	가입자* 100만명당(D) 건수	총 건수(A)	가입자* 100만명당(E) 건수	총 건수(A)	가입자* 100만명당(F) 건수
LGU*	264	23.0	428	32.1	62.1	39.6
KT	313	20.5	296	17.0	-5.4	-17.1
SKT	325	12.4	237	8.6	-27.1	-30.6
계	902	17.0	961	16.5	6.5	-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의 통신사별 가입자수(2015년, 2018년 기준)

**증감률 : C=(B-A)/Ax100, F=(E-D)/Dx100

LGU+ ‘가입·이용·해지단계’, SKT·KT ‘해지단계’에서의 소비자피해가 2015년 대비 증가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 시점별 소비자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 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를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으며,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피해발생시점별 이동통신사 피해구제 접수 건수 】 (단위:건,%)

구 분	SKT			KT			LGU*		
	2015년(A)	2018년(B)	증감률(C)	2015년(A)	2018년(B)	증감률(C)	2015년(A)	2018년(B)	증감률(C)
가입단계	94	49	-47.9	73	44	-39.7	39	76	94.9
이용단계	179	137	-23.5	190	166	-12.6	148	238	60.8
해지단계	43	46	7.0	43	80	86.0	75	108	44.0
계	316	232	-26.6	306	290	-5.2	262	422	61.1

*증감률 : C=(B-A)/Ax100

한편,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C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12월 크리스마스

Writer 김 우 식 원자력(기계)배관기술실 차장

한적한 샛길에 멈춰
눈이 내리는 하늘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어젯밤 소리없이 내린
하얀 눈들을 조심스레 밟아 갑니다.

빼돌빼돌한 발자국 옆에서
새로이 새겨진 그대의 발자국을 보며
웃어 봅니다.

짧은 만남 뒤 헤어짐이 아쉬워 멈춘
그대를 달래며 다정스레 눈을 마주쳐 봅니다.



또 12월입니다

차고 나면 기울어지는 것이 비단 달 만은 아닐 것입니다
올 한 해 채우려 했던 것들을 향해 부단해 애를 써 왔고
채웠던 것에 만족하고 불만도 했던 마음 쓰임도 있었고
애를 쓰고 분주했던 몸부림이 성공하여 기쁘기도 했지요
어쩌면 12월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 우리들에게는 그저
끝이 보이지 않는 연속 행로에 잠시 쉼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세요. 심신을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12월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처 부장

